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7 서울시 9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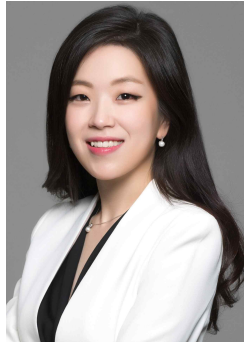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 흥익대학교, 응지세무대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 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현재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연재 중**



2017 서울시 9급

문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 정답: ②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로마자 표기법

'학여울'은 '학'과 '여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므로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ㄹ'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9항과 그로 인한 비음화 [항녀울]이라 발음한다. (학여울 → 'ㄹ' 첨가 → 학녀울 → 비음화 → 항녀울) 'ㄹ' 첨가, 비음화 같은 음운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므로 '학여울[항녀울]'은 'Hangnyeoul'이라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ㄹ'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유음화하여 [설릉]으로 발음한다. 유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로마자 표기에서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지만, 'ㄹㄹ'은 'll'로 적으므로 '선릉[설릉]'은 'Seolleung'이라 적는다.
- ③ '낙동강'은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낙똥강]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로마자로 표기할 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낙동강[낙똥강]'은 'Nakdonggang'이라 적는다.
- ④ '집현전'은 'ㅂ'과 'ㅎ'이 만나 자음이 축약되어 [지편전]으로 발음한다. 축약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는 로마자 표기 규정에 따라 축약을 반영하지 않고 'Jiphyeonjeon'이라 적는다.

2017 서울시 9급

문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엔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뒤풀이'는 명사 '뒤'와 '풀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사이시옷의 발음상 조건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뒤풀이'는 [뒤: 푸리]로 발음하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다. 또한, 결합하는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사이시옷의 형태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에도 '뒤풀이'라고 적지 않고 '뒤풀이'라 적는 것이 옳다.

'맥줏집'은 한자어인 '맥주(麥酒)'와 순우리말인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뒤 단어의 초성이 'ㄱ[ㄱ]집'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므로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에서 '맥줏집'과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문맥상 단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늘었다는 의미이므로,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라는 의미의 '분다'를 활용하여 '몸이 분는 바람에'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다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본말 '넉넉치 않다'는 '넉넉지 않다'로 줄여 적는다.
- ④ '로써'는 「1」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2」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3」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를 갖는다. ④의 경우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로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17 서울시 9급

문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빙'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ㅁ'으로 변화하였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고전 문법 - 국어의 역사

띄어쓰기는 최초로 1896년 「독립신문」에 반영되었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오답 해설:

- ② 고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만 존재하였으나 16세기 후반에 '가'가 나타났으며 17세기에 들어서는 널리 확산되어 쓰였다.
- ③ '·' (아래이)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16C에 [-]로, 첫째 음절에서는 18C에 [ㅏ]로 바뀌면서 음가가 소멸되었다. 물론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 ④ '빙(순경음비음)'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가 모음 앞에서 'ㄱ/ㄷ'로 변화하였다.

2017 서울시 9급

문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늘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의부가 절개를 다 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배열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문장이 문단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과 ㉡의 신라 진평왕 때 늘최의 발언, ㉢의 죽죽의 발언은 나열된 사례에 불과하다. 이들을 어우를 수 있는 문장은 선비 정신이 의리 정신으로 표현됨으로써 강인성이 드러난다는 ㉣이다.
★ 오답 해설:
 ①, ② 큰따옴표의 시작과 끝에 주목해보면 ㉠과 ㉡은 이어지는 문장이다. 내용 역시 겨울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원군의 외로운 성이 이어받는 등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절개의 선비 정신이 끝까지 적에 맞서 싸우는 의리로 강인하게 표현된 실제 사례이다. 문단의 중심 문장은 될 수 없다.
 ④ ㉣도 ㉠,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례이다. 죽죽이 대나무에서 따온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선비 정신으로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2017 서울시 9급

문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화자는 별을 보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떠올린다. 이것들은 과거 속에 존재하는 그리운 대상들과 이상적 목표이므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작품해설] <별 헤는 밤>, 윤동주
 일제 강점기를 살던 작가 윤동주는 가을 하늘의 별을 보며 아름답지만 멀리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현재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 긍정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변할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
작가 ▶ 윤동주(1917-1945)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반성적, 고백적, 상징적
주제 ▶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아성찰

★ 오답 해설:
 ①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내면을 고백하였다.
 ② 화자는 내면 속 쓸쓸함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현실을 비판한 적은 없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현실적 욕망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내적 세계라고 볼 수 있다.

2017 서울시 9급

문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의미론 - 어휘의 관계

‘살다-죽다’는 상보 반의 관계, 나머지 반의 관계는 정도 반의 관계이다.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이다.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한 개의 요소만이 달라야 성립한다. 반의 관계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참고) 반의 관계의 종류 (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1) 상보(相補) 반의어: 반의 관계의 개념적 영역에서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단어 쌍이다. 중간항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예) 살다-죽다, 남자-여자, 참-거짓 등
 (2) 정도(程度)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정도 반의어는 다시 척도(尺度) 반의어, 평가(評價) 반의어, 정감(情感) 반의어로 나눌 수 있고 중간항이 존재하며 동시에 부정이 가능하다.
 예) 높다-낮다, 뜨겁다-차갑다, 늙다-젊다 등
 (3) 방향(方向) 반의어: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방향 반의어에는 공간적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적 대립이 있다.
 예) 위-아래, 부모-자식, 사다-팔다 등

2017 서울시 9급

문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이다.
개살구: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헛웃음: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과 명사형 '웃음'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낚시질: 명사 '낚시'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지우개: '지우다'의 어간 '지우-'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건어물(乾魚物)' 역시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건-'과 명사 '어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오답 해설:

- ② '금지곡(禁止曲)'은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의미하는 명사 '금지'와 명사 '곡'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참고) 어떤 종류의 노래나 악곡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곡(曲)'이 쓰이는 파생어에는 '교향곡, 합주곡, 합창곡' 등이 있다.
③ '한자음(漢字音)'은 명사 '한자'와 명사 '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핵폭발(核爆發)'은 명사 '핵'과 명사 '폭발'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2017 서울시 9급

문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넘금 ② 늦거사 ③ 바울 ④ 가비아본

★ 정답: ④ -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중세 국어

'방'은 순음 'ㅂ' 아래 후음 'ㅇ'을 상하로 결합하는 연서(連書)(니서쓰기)에 의한 표기이다. 순경음 중에서 'ㅂ, ㅍ, ㅃ'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고, 'ㅂ'만이 순수 국어 표기에 사용되었으나 《동국정운(東國正韻)》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성 체계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방'이 포함된 '가비아본'이다.

참고) 초성 17자 (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오음(五音)	기본자(基本字)	가획자(加劃字)	이체자(異體字)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唇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후음(喉音)	ㅇ	ㅎ	

초성 23자

	전청(全靑)	차청(次靑)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清不濁)
아음(牙音)	ㄱ	ㅋ	ㄲ	ㅇ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순음(唇音)	ㅁ	ㅂ	ㅃ	ㅍ
치음(齒音)	ㅅ	ㅆ	ㅅㅅ	
후음(喉音)	ㅇ	ㅎ	ㅎㅎ	ㅇ
반설음(半舌音)				ㄺ
반치음(半齒音)				ㅄ

2017 서울시 9급

문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오류의 유형

SNS에서 뜨고 있는 식당이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중들이 좋아 하는 것을 들어 대중심리에 영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오류인 '군중 심리에 호소'이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맛있는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같은 오류에 빠진 진술이다.

★ 오답 해설:

- ② 무지에 호소: 어떤 논제의 반증 예가 제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제가 참이라고 단정하거나, 또는 그 논제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오류.
예) 귀신은 분명히 있어. 귀신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거든.
③ 부적합한 권위예의 호소: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권위자를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권위자로 착각하는 데서 범하는 오류. 또한 관습이나 전통에 호소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부적합한 권위예의 논증 오류라 한다.
예) 종교적 문제의 논쟁에 있어 다윈의 권위를 인용한다거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
④ 자신이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아니다.

2017 서울시 9급

문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어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최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최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최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야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줌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최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최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다이쇼: 주인 *최선: 조선 *내지인: 일본인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서술 전개 방식 - 시점

서술자 ‘나’는 주인의 도움을 받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한밀천을 받아 장사를 한다든지, 내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고, 아이들도 일본인 학교만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일본을 맹목적으로 선호한다. 심지어 최선말은 쓰지 않고 국어, 즉 일본어만 쓰겠다고 한다. ‘내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식민지 시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서술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며 독자는 비판적으로 작품을 읽게 된다.

[작품해설] <치숙>, 채만식

성격 ▶ 풍자적, 사실적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일제 강점기, 1930년대

공간적 배경: 서울

- 특징 ▶ ① 속어나 비어 등을 많이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음.
 ② 대화적 문체를 구사하여 ‘나’와 아저씨와의 의식상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냄.
 ③ 주인공인 소년이 혼자 지껄이는 뒷구리 형식으로 일관함.
 ④ 풍자의 심층화를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냄.
 주제 ▶ 일제 강점기에 순응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과 풍자, 사회주의 지식인의 현실 무능력 비판

★ 오답 해설:

- ① 서술자 ‘나’는 내지인에 대한 맹목적 선호를 드러낸다.
- ② ‘나’가 사건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1인칭 시점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술한다.
- ③ 서술자는 전반적으로 다른 인물이 아닌 자신의 미래 계획과 가치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017 서울시 9급

문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 ② 분주함
- ③ 성급함
- ④ 뒷고생

★ 정답: ① - 어휘 - 속담

- ㉠ 가물에 도랑 친다(속담)
 1. [북한어] ‘가물에 돌 친다’의 북한 속담.
 2. [북한어]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북속하듯](속담)
 1.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걷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고 거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답 해설:
 ④ 뒷고생: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고생.

2017 서울시 9급

문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 도치
- ② 改悛 - 개진
- ③ 殺到 - 살도
- ④ 汨沒 - 일몰

★ 정답: ② - 어휘(한자) - 독음

- 改悛(고칠 개, 고칠 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뒤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 오답 해설:
 ① 陶冶(절그릇 도, 풀무 야): ① 도공과 주물공. 또는, 도기를 만드는 일과 주물을 만드는 일. ② 심신을 닦아 기르
 참고) 倒置(넘어질 도, 돌 치): ① 뒤바뀜, ② 거꾸로 뒤바뀌어 돌, ③ 문법이나 수사학 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어순이 뒤바뀌는 일. ‘안 된다. 가지 않으면’ 따위
 ③ 殺到(빠를 쇠, 이를 도): 세차게 몰려들음.
 참고) 刺殺(찌를 척/찌를 자, 죽일 살): 칼 따위로 찔러 죽임.
 ④ 汨沒(골몰할 골, 빠질 몰): ① 다른 생각을 일걸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음. ② 부침(浮沈)
 참고) 日沒(날 일, 빠질 몰): 해가 짐.

2017 서울시 9급

문 13. 다음 중 <보기> 중 띄어쓰기 옳은 것은?

<보기>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산 의자는 부드러운 젖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뿔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쪽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젖빛으로 바라는 ㉣ 일 밖에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㉓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해를 세는 단위 의존 명사인 '년'은 띄어 쓴다. 다만,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30년'으로 적는 것은 허용된 표기이다. 또한,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명사 '동안'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해설:

- ① '창문의 밖'을 의미하는 '창밖'은 '창'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로 사전 등 게재되었으므로 ㉑은 '창밖'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② '우단'은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뺀 비단'을 뜻하는 '벨벳'과 같은 말이다. '우단'은 사전 등 게재되어 있으나 '우단천'이라는 말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㉒은 '우단 천'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④ '밖에'는 품사 통용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이다. '집 밖에 나가 있어라'와 같은 경우에 쓰이는 명사 '밖'과 조사 '에'의 결합인 '밖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밖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와 붙여 쓴다. 따라서 ㉔은 '일밖에'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작품해설] <소문의 벽>, 이청준

- 갈래 ▶ 중편소설, 액자소설
- 성격 ▶ 실존적, 상징적
- 배경 ▶ 시간적 - 1960-70년대, 공간적 - 어느 도시
- 시점 ▶ 외화(바깥 이야기)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안 이야기)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
(자기 진술의 욕망을 억압당한 한 인간의 정신적 상처)

2017 서울시 9급

문 14. 다음 <보기>의 ㉑~㉔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㉑ 속여 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㉒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㉓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㉔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 정답: ㉓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㉔의 주어만 '우리'이다. 나머지는 '환자'가 주어이다.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환자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환자는)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환자)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㉑ 속여 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환자)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환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환자)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㉒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우리가) 보호자 ㉓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보호자)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은 드러날 만한 것을 ㉔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2017 서울시 9급

문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㉑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㉒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㉓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㉔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㉒-㉓-㉑-㉔
- ② ㉒-㉓-㉔-㉑
- ③ ㉓-㉒-㉑-㉔
- ④ ㉒-㉒-㉔-㉑

★ 정답: ㉓ - 지식국어 - 문학시대사

시사의 전개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㉒-㉓-㉔-㉑이다.

- ㉒ 「님의 침묵」은 1926년에 출간되었다. KAPF는 1925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 1920년대
- ㉓ 「기상도」는 193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1933년에 발족한 '구인회'를 중심으로 모더니즘이 1930년대 한국 문단을 이끌었다. - 1930년대
- ㉔ 구상의 「초토의 시」는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195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 1950년대
- ㉑ 신경림의 「농무」는 산업화로 인한 1960~1970년대 농민의 어려움을 표현한 1970년대 현실 참여시이다. 김지하도 1975년에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표하며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등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재리 아낙네들」 등을 발표한 고은도 1970년대에 현실 참여시를 다수 발표하였다. - 1970년대

2017 서울시 9급

문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갓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끝끝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 정답: ② - 어휘 - 고유어
 굼적대다(동사) = 굼적거리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참고) 굼실대다(동사) = 굼실거리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오답 해설:
 ① 가닐대다(동사) = 가닐거리다
 「1」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갓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2」 보기에 매우 위태롭거나 치사하고 더러워 마음에 자린 느낌이 자꾸 들다.
 ③ 꼬약대다(동사) = 꼬약거리다
 「1」 「...을」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2」 「1」 좁은 데로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잇따라 물려가거나 들어오다.
 「2」 연기나 김 따위가 계속 나오거나 생기다.
 「3」 어떤 마음이 계속 생기거나 치밀다.
 「3」 「북한어」 지저분한 것이 좁은 구멍으로 조금씩 나오다.
 ④ 끝끝대다(동사) = 끝끝거리다
 끝끝대다⁰¹: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끝끝대다⁰²: 트림하는 소리가 자꾸 나다.

2017 서울시 9급

문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議
- ② 사고 - 思考
- ③ 선택 - 選擇
- ④ 준거 - 準據

★ 정답: ② - 어휘(한자) - 표기
 思考(생각 사, 생각할 고): 생각하고 궁리함

★ 오답 해설:
 ① 討議(질 토, 의논할 의):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걸어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
참고) 義(옳을 의)
 ③ 選擇(가릴 선, 가릴 택): ①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음,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음
참고) 先(먼저 선)
 ④ 準據(준할 준, 근거 거): 일정한 기준에 의거함
참고) 擧(들 거)

2017 서울시 9급

문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 ② 물+난리 → [물랄리]
- ③ 입+고 → [입꼬]
- ④ 한+여름 → [한너름]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한여름'은 [한너름]으로 발음한다. 'ㄴ' 첨가는 ㉢ 첨가에 해당한다.

참고) 음운의 변동 (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음운 변동											
교체=대치			축약		탈락		첨가 = 사잇소리				
끝소리	된소리	동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ㄴ' 첨가	된소리	'ㄹ' 모음 순행 동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ㄹ' 모음 역행 동화				

★ 오답 해설:
 ①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ㄱ, ㄷ, ㅂ)이 비음(ㄴ, ㄹ)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에 의해 '국+만'은 [궁만]으로 발음한다. 비음화는 ㉠대치(=교체)에 해당한다.
 ②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는 유음화에 대한 규정,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한다. 유음화는 ㉠대치(=교체)에 해당한다.
 ③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올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경음화 현상)는 ㉠대치(=교체)에 해당한다.

2017 서울시 9급

문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이 세계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첫 문장에서 인간사는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사는 반복을 반복할 뿐이라 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그런데’로 시작하며 첫 문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진술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사와 자연사의 유사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다음의 문장 역시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합일을 지향했다고 언급하며 ㉠을 뒷받침한다.

★ 오답 해설:

- ① 첫 문장과 유사한 논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에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비슷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③ 자연이 인간에 종속된다는 내용은 문맥에 알맞지 않다.
- ④ 인간사와 자연사 연구의 노력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작품해설] <거꾸로 보기>, 법정

갈 래 ▶ 수필, 경수필

성 격 ▶ 일상적, 회상적, 경험적, 교훈적

- 특 징** ▶ 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교훈을 전한다.
 ② 비유, 인용, 유추의 방법으로 글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③ 회상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주 제 ▶ 선입견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의 중요성

★ 오답 해설:

- ① 소유욕을 버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② 빨래를 하고 그날로 풀을 먹여야 흥분한다는 내용은 ‘나’의 성미에 불과하다. 또한 이 부분은 서두일 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후반부에 서술된다.
- ③ 종교에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017 서울시 9급

문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흥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수필의 주제

‘나’는 빨래를 하고난 후 누워서 쉬다가 돌아누워 산봉우리를 본다.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보니 산이 다른 모습인 것에 흥미를 갖고 가랑이 사이로 산을 보기도 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흥미를 느낀 부분에서 <보기>가 끝이 난다. <보기>의 글 다음에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2018년 커리큘럼 안내, 면접 자료,
 기타 직렬 기출 문제 및 해설 등
 각종 수업 자료

<http://cafe.daum.net/naraeyoujin>